

제주도 공공수장고 '나홀로 복원' 언제까지

2019년 저지문화마을 설립
개관 이후 보존처리실 가동
관련 인력 달랑 1명 그대로

한국화·서예 절반 이상 수장
지류 분야 인력 보강 필요성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의 보존처리 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마을 제주현대미술관 인근에 문을 연 이래 '나홀로' 복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수장고는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설치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931㎡ 규모로 수장실 4실, 다목적 전시실 등을 갖췄다. 도내 공립미술관의 수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자체 수장 미술품 복원·수복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관하던 해에 뒤늦게 미술

품 보존처리실을 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제주도립미술관 야외 조각품, 작고 작가인 제주 서양화가 김인지 유화 작품에 대한 보존 처리가 잇따랐다. 특히 제주도에서 보관 중이던 1953년의 김인지 유화 작품을 발굴해 얼마 전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 등 2점을 복원하고 이달 9일 개막 예정인 제주도립미술관의 '제주 작고 작가 김인지전'을 통해 공개한다.

미술품 보존처리를 위해 미술품을 타 시·도로 보내야 했던 운송절차와 관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보존처리실 위상에 맞는 전문 인력 배치는 뒤따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화 복원을 전공한 학예연구사 1명과 공무원 1명만 근무 중으로 '미술품 보존처리실' 운영이 무색하다.

1월 말 기준으로 공공수장고에 수장한 작품은 509점에 이른다. 장르별로는 서예 179점, 서양화 96점, 한국화 91점, 공예 39점, 조각 37점, 디자인 30점, 사진 20점, 문인화 13점, 판



제주도 공공수장고에서 최근 보존처리를 마친 김인지의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 사진=도립미술관 제공

화 4점이다. 한국화, 서예, 문인화 등 지류 작품을 합치면 283점으로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그래서 수장품 비중과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류를 복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수장고를 관리하는

제주현대미술관 측은 "공공수장고가 지어진 후 도내 공공기관 이관 작품이 늘면서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보존처리 인력을 늘려달라고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예술인 창작과정 중심 지원 신설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7개 유형 2차 공모 접수
예술활동기록도 첫 시행
원로예술인은 사업 구분

제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과정 중심의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2021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 내용을 발표했다.

2차 공모 유형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공간지원, 제주원로예술인지원, 문화예술연구와 비평지원, 예술활동기록지원, 예술창작준비지원(창작활동준비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등 7개다. 예술활동기록지원과 예술창작준비지원은 이번

에 신설된 유형이다. 공모지원금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억5900만원 등 총 10억6400만원 규모다. 올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협력 공공 공연장은 김정문화회관, 돌문화공원(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제주도문화회관이다. 이 사업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제주원로예술인지원은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으로 30년 이상 예술 활동경력을 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기술재특지원과 회고사업지원으로 구분했다.

예술활동기록지원은 예술인(단체)이 스스로 예술활동 경력을 기록화하는 지원사업이다. 경력 10년 이상인 예술인(단체)에 한한다.

예술창작준비지원 중 창작활동준비지원은 창작발표 전 구상단계의 워크숍, 인터뷰, 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역량강화지원은 예술단체의 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과 창작발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예술공간지원은 공연예술 공간 활성화, 작은 예술공간 프로그램 지원,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눠 접수한다. 문화예술연구와 비평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은 개인이나 단체별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제외한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다. 제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지원자와 장애예술인(단체)에겐 이달 15~16일 사전예약제로 행정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사업 설명회는 이달 5일 오후 2시 온라인 채널로 진행된다. 심의결과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다. 문의 800-9131-5. 전선희기자

대면·접촉 상징하는 축제 온라인으로

코로나 1년 개최 방식 변화
작년 메뉴얼 없어 잇단 취소
올해는 동영상 채널 등 활용

코로나19 초기에 제주에서 가장 먼저 취소 결정을 내린 건 2020 탐라국 입춘굿이었다. 당시만 해도 집합 행사에 대비한 별도의 메뉴얼이 없었던 때여서 '축제 취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겼다. 축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꾀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 한편에 감염병이 피해야 할 대면과 접촉을 불러오는 대표적 행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1년, 축제가 달라지고 있다. 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가 2021년 축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35개 축제 중에서 6개가 온라인으로 치르거나 비대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탐라국입춘굿, 3월 제주돌봄 축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 4월에 예정된 제38회 제주유채꽃축



2019년 제주시 도심을 가득 채웠던 탐라문화제 거리 행렬. 코로나 시국으로 이전 추억이 된 장면이다.

제, 9월 제13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10월 제27회 서귀포칠십리축제, 12월 성산일출축제는 현장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17개 축제는 현장 개최를 계획 중이라고 했으나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최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 등 12개 축제는 현재로서는 개최 방식이 미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측은 "작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등 비접촉 개최 방식을 고민하는 지역 축제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2020년 제주도 평가 대상인 27개 축제 중에서 제한적 대면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을 활용해 행사를 진행한 사례는 10월 탐라문화제, 11월 서귀포칠십리축제, 12월 성산일출축제 등 3개에 그쳤다. 나머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축제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2020년 축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전선희기자

우당도서관 '올해의 책'
제주시민 추천으로 선정
제주 문학 신설 4개 부문

'2021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를 주제로 운영되는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제주시민들에게 '올해의 책'을 추천 받는다.

'올해의 책'은 기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문에 '제주 문학' 부문이 신설돼 4개 분야의 도서를 뽑을 예정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도서 선정단도 어린이(10세 이상), 청소년(14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부문별로 10명씩 총 30명을 선출 순공모한다. 시민도서 선정단에게는 후보 도서 지원(3권)과 올해의 책 사업 우선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우당도서관은 올해의 책이 선정되면 '시민 추천 북클럽이 콘서트', '올해의 책,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어린이 방학교실', '업사이트클링 북아트', '나를 위한 낭독 필사', '올해의 책 둘러보기' 등 연계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의 책 추천과 시민도서 선정단은 2월 19일까지 '책섬, 제주'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전선희기자

제주 문화재 돌봄 612개소로 확대

돌봄사업단 2곳 참여
역사 338·자연 274개

올해 제주 지역의 지정·비지정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이 612개소로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시·예방적인 문화재 관리 체계다.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돌봄사업단(민간단체 공모 수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시 인력 수, 사업 예산 등도 꾸준히 늘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제주를 비롯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

재, 비지정문화재 등 87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이 이뤄진다.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돌봄사업단은 모두 합쳐 23 곳으로 고용된 상시인력은 770여 명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모니터링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에는 제주문화진흥재단 제주역사문화재돌봄사업단,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자연문화재돌봄사업단 2곳이 있다. 올해 제주역사문화재돌봄사업단은 338개소, 제주자연문화재돌봄사업단은 274개소의 문화재 돌봄사업을 이어간다. 이는 전년도 역사문화재 300개소, 자연문화재 229개소보다 늘어난 수치다. 사업 예산은 작년 13억2176만원에서 올해는 14억2556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사업단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총 41명이다. 전선희기자

축 득
CONGRATULATIONS

취 득
이학박사(Ph.D. Biomedical Sciences)



한승엽
(오현고, 미국 Baylor College of Medicine)
부: 한일용(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 모: 고영숙(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조부: 故 한재봉 · 조모: 김정림)



이민정
(한성여고, 미국 Texas A&M University)

미국 Baylor College of Medicine과 Texas A&M University에서 조카 부부가 각각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을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조카 부부를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들
(한동용 강순애, 한경애 김홍중, 한경선 임인호)

축 상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정인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 랑 모 임

축 상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정인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칠 복 회 일 동